

나의 바다는 당신의 발목 아래서 당신과 함께 요동치고 있어요.

나를 위해 발을 굴러주세요.



OH, MY BUOY
by Heo Sungwan

PROVKE PRESS, 2023

오, 나의 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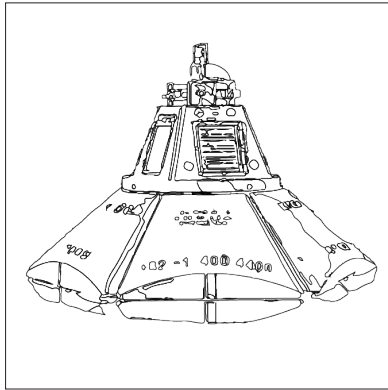
PP

허성완

서문

부이(BUOY)는 일반적으로 '부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만큼은 특별히 해양관측용 부이만을 지칭합니다. 부이는 노란색 몸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는 선박들이 행여나 보지 못해 충돌하게 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우연히 바다에 떠 있는 부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즉시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BUOY is a word that commonly means 'floating mark', but here it specifically refers to BUOY for the marine observation. It has a yellow body, whose reason seems because passing ships can crash, if not seeing each other. Earlier this year, I happened to see the picture of Buoy floating in the sea, by which I was immediately fascinated.



부이는 온몸에 바다를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매달고 있는데, 그걸 통해 바다의 유향과 유속, 파고와 파주기, 수온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부이가 바다를 사랑한다고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이가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 자신이 사랑하는 바다를 섬세하게 읽어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전시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과정에서 저는 침팬지 부이(부이)를 알게 되었고 또 배우(부이)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이들. 그리하여 부이에서 시작된 것이, 여차저차 비인간/비유기체와의 관계 속에서 배제된 목소리들에 귀기울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사랑의 관측술”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작업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BUOY has various devices all over the body that can read the sea, through which it measures and transmits current direction and speed, wave height, wave period, water temperature etc in real time. Looking at the data, I came to imagine that BUOY really loves the sea. I mean that BUOY is trying to read in detail that it loves by throwing its whole body in the sea.

That's why this exhibition started, and in the process after that, I got to know a CHIMPANZEE Booee(부이) and also talked a lot with ACTORS(부이) – My 부이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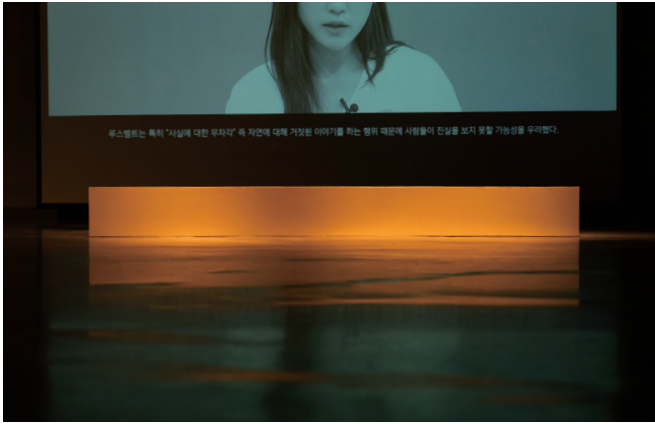
Accordingly, what was started with BUOY has been developed into the question of trying to listen to the voices excluded from relationships with non-human/non-organic bodies, then being led to the new theme called “LOVE OBSERVATION.” So it seems that this will be the topic of the next work.

허성완
Heo Sungwan



당신도 한때는 나와 같았지요, 그 옛날,
인간이 되기 전에도, 한때는 당신도
자신을 활짝 열었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당신이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말을 해요.
산산이 부서졌으니까요.

루이즈 글릭, <꽃양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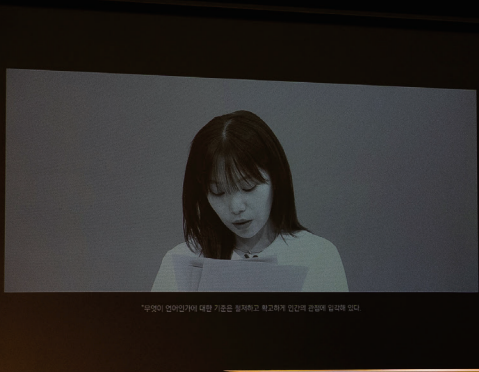


오 나의 부이

2023, 싱글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스테레오), 62분

이 작품은 해양관측용 부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부이를 기억, 사랑, 언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고 인격화하는 시도를 통해 작가는 부이와의 관계맺기를 실험한다. 영상은 기억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소통하는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읽는 존재로서의 부이를 보여준다.

This work was created, based on the inspiration from a BUOY for marine observation. I experimented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BUOY through an attempt to interpret and personify BUOY with keywords of memory, love, and language(communication). This is also an effort to learn the response ability that humans should have as long as they live in relationships with various beings such as humans, animals, plants and machines. But the approach I tried, which is anthropocentric, may be possibly corrected through self-reflective review. The yellow tank containing water embodies BUOY, which wholly holds the sea as an object of love. The video shows a BUOY as a remembering being, a loving being, a communicating being and first of all, as a reading being.





장미 | 장미

<오 나의 비>는 부이를 형상화한 설치물과 1시간에 이르는 영상을 결합한 형태의 작품이다. 그 중 영상은 총 세 명의 배우가 작가가 선정한 글을 나눠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가가 선택한 글은 세 가지다. 수어를 할 수 있었던 침팬지 부이에 관한 이야기, 독특한 주파수의 울음소리를 가진 고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사건의 발생 경과를 분 단위로 정리한 기록이 그것이다.



배우 성빈



배우 임이지



배우 전려은

부이는 영장류학자 로저 파우츠가 아는 가장 재능 많은 침팬지 중 하나였다. 부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모두 부이를 극찬했다. 부이는 온화하고 느긋했고, 건포도를 좋아했다. 부이는 미국 수어로 평균 54분에 한 단어를 배울 수 있었다.

부이는 1964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태어났다. 부이의 어머니는 실험용 침팬지였는데, 과학자들은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부이가 특정 생체의학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부이는 발작을 일으켰고, 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은 단지 그 이유로 뇌분리 수술을 감행했다. [당시] 뇌분리 수술은 대발작에 대한 실험적인 치료법이었다.

로저 파우츠는 그의 책 <가장 가까운 친족: 침팬지와 대화>에서 부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파우츠는 이렇게 썼다. “의사들은 부이의 두개골을 열고 뇌량을 절단해, [좌우] 대뇌 반구 두 개의 연결을 끊었다. 부이는 사실상 2개의 분리된 뇌를 갖게 된 것이다.” 회복 과정은 복잡했고, 부이는 부어오른 뇌를 가라앉히기 위해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한 국립보건원 의사는 부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미안함을 느끼고는 그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데

려갔다. 파우츠가 말하듯 부이는 “국립보건원의 감시망을 벗어났고”, 국립보건원은 그가 사라진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금세 성장한 부이는 더 이상 의사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영장류 연구소로 보내졌다. 실험동물을 거칠게 다루는 것으로 영장류 학계에서 악명 높은 심리학자 윌리엄 레먼 박사가 운영하는 연구소였다. 로저 파우츠가 부이를 만나 수어를 가르친 곳이 바로 여기다. 당시 파우츠는 와쇼라는 이름의 침팬지에게 수어를 가르치며 언어 능력을 연구하는, 매우 획기적인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와쇼가 두세 살 아이 수준의 수어를 사용한다는 걸 인정한 많은 언어학자들은 와쇼를 일종의 ‘돌연변이 천재’라고 주장했다.” 파우츠는 연구소에 있는 다른 젊은 침팬지에게 수어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했다.

부이는 로저에게 별명을 붙였다. 연구소의 침팬지들은 로저의 이름을 부를 때 깃털을 당겼는데, 이를 배운지 얼마 후 부이는 단지 귀를 손가락으로 살짝 튕기기만 했다. 마치 로저의 이름을 로즈라고 줄여 부른 듯했다. 파우츠 또한 부이에게 수어로 부를 수 있는 별명을 붙였다. “분리뇌 부이.”

[중략] 하지만 연구소는 동물들에게 위험한 장소였다. 파우츠는 점차 자신이 감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일종의 “친절한 간수”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양심의 고통을 줄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 와소를 구출하기 위해 파우츠는 와소와 함께 연구소를 떠날 방법을 알아냈다. 물론 자신이 수어를 가르치고 사랑했던 부이를 비롯한 많은 침팬지들을 뒤로한 채 떠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부이와 다른 침팬지들을 구할 방법은 없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레먼 박사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다.

1982년 레먼은 부이를 포함해 20여 마리가 넘는 침팬지들을 뉴욕대학의 자금으로 운영되던 영장류를 이용한 실험적 의료 및 수술 연구소(이하 LEMSIP)에 팔았다. 많은 침팬지들이 수어를 쓸 줄 알았고, 이들 중에서도 앨리와 님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으로 이미 유명했다. [중략]

앨리와 님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분노했고, 이 때문에 이들은 다시 레먼 연구소로 보내졌다. 님은 연구 대상에서 면제됐고, 텍사스에 있는 구조동물 목장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LEMSIP을 둘러싼 논쟁이 가라앉자 앨리는 뉴멕시코주에 있는 화이트샌즈 연구소라는 더 열악한 연구소로 은밀하게 보내졌다. 이곳은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살충제를 동물들에게 실험하는 곳이다. 수년 후 앨리는 여기서 죽었는데, 사망 원인은 살충제 중독으로 추정된다.

대중의 강력한 항의는 동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내포하는 윤리 문제를 둘러싼 깊은 혼란을 보여주었다. 파우츠는 이렇게 썼다. “LEMSIP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 ‘내보내줘’ ‘담배 줘’ ‘안아줘’ 같은 의사를 수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침팬지의 혈액이었다. 반면 침팬지에 대한 끔찍한 취급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수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듯하다. 마치 그 능력이 그들을 더욱 동정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말하자면 LEMSIP의 앨리와 님에 대한 대중의 항의는 침팬지 자체보다는 “인간적” 특징을 지닌 존재를 감금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사람들은 언어나 이성 같은 인간적 능력을 우리에서 꺼내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다. 앨리와 님은 단지 그런 능력에 수반된 존재에 불과했다. 부이는 수어를 꽤 배웠고 쓸 수도 있었지만 그의 능력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가 우리에서 풀려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명한 두 침팬지가 풀려날 대중의 항의가 축하로 바뀌었을 때, 부이가 풀려날 가능성은 사라졌다. [중략]

이후 부이는 C형 간염을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3년 간 우리에게 갇혀 지냈다. 이제 이야기는 로저 파우츠와 부이의 재회로 이어진다.

부이는 LEMSIP의 우리에서 13년간 혼자 살았다.

로저 파우츠는 부이를 결코 잊지 않았지만, 자신의 옛 학생이자 친구인 부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이런 무력한 상황은 1995년 ABC 방송국 PD가 LEMSIP의 침팬지들을 <20/20>의 1회분으로 다루기 위해 파우츠에게 연락했을 때 바뀌었다. 파우츠는 그것이 부이를 자유롭게 만드는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혹사라도 이런 결정이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자신과 부이가 받을 심리적 충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파우츠는 부이와 재회하던 장면을 자신의 책 <가장 가까운 친족: 침팬지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몸을 굽히며 방에 들어갔다. 상냥한 침팬지 인사를 건네며 부이의 우리에 다가섰다. 그러자 부이의 얼굴 전체에 웃음이 번졌다. 역시, 부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녕 부이.” 나는 수어를 했다.

“날 기억해?”

“부이, 부이, 나 부이야.”

부이는 수어로 답했고, 누군가가 자신을

실제로 알아본 것에 무척 기뻐했다. 부이는 손가락을 머리 한가운데로 내려 그으며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건 1970년에 내가 부이에게 알려준 수어였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자들이 어린 부이의 뇌를 돌로 절단한 지 3년이 지난 해였다.

“그래. 넌 부이, 넌 부이야.” 나는 수어로 답했다.

“먹을 걸 줘, 로저.” 부이가 청했다.

부이는 내가 자기를 위해 항상 견포도를 가지고 다녔던 것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26년 전 부이가 나를 위해 만들어낸 별명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 내 오랜 별명을 부이가 수어로 부르는 것을 보고 나는 당황했다. 나는 잊었지만 부이는 잊지 않았던 것이다. 부이는 예전의 좋은 날들을 나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부이에게 몇 개의 견포도를 주었고, 우리는 떨어져 지낸 세월이 무색하게 금세 다시 가까워졌다. 오랜 친구 사이가 으레 그렇듯 말이다. 부이는 철창 안에서 손을 내밀었고 내 팔을 어루만졌다. 부이는 다시 행복해했다. 부이는 와소와 내가 10여 년 전 어느 가을날에 레먼 박사 연구소의 침팬지 섬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와 똑같이 다정했다. ……

나는 생각했다. 지금의 부이를 보자. 13년

을 지옥에서 지냈는데도 나를 용서해주었고 여전히 순수하다. 부이는 아직도 나를 사랑해준다.

인간이 자신에게 저지른 그 모든 짓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 [중략] 대중들의 격렬한 반응 덕에 부이와 여덟 마리의 침팬지들은 <20/20>의 해당 에피소드가 방송에 나간 지 5개월 후 야생동물 중간 기착지로 불리는 비영리 애니멀 생츠히어로 옮겨졌다.

부이의 이야기를 알게 된 많은 이들처럼 나는 부이의 끔찍한 상황뿐 아니라 그 다정함, 용서하는 힘, “아름다운 옛 시절”을 기억하는 능력에 놀랐다. 하지만 오랫동안 부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빨간 페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이가 우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했을 가능성 말이다. 오랜 친구이자 자신이 만난 인간들 중 가장 친절한 인간이었을 파우츠를 만났을 때 부이가 보인 환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가 그 만남에서 부이가 느꼈을 수 있었을 어떤 것과 시도하려 했을 어떤 것의 가능성을 더 확장했다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해보았다. 부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게 행동했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감정이 있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여전히 “구멍없고” “너그러운” “다정한 아이”였다. 인간을 모방하는 게 부이에게 기쁜 일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그가 그렇게 한 이유

가 탈출을 위해서였을 뿐이라면?

파우츠 역시 가장 큰 연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방식으로, 즉 부이를 거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가 풀려나는데 필요한 일을 정확히 수행했을 수 있다. 부이와 파우츠 모두 탈출구가 필요했다. 즉 부이는 우리에서 나가야 했고, 파우츠는 자신의 양심을 짓누른 과학 학제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어떤 전술을 썼든, 그들 모두 결과적으로 숙명에서 벗어났다.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 파우츠는 자신이 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어겼다고 썼다. “연구 대상을 사랑하지 마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규칙을 깨뜨려주길 바란다.

수나우라 테일러, <짐을 끄는 짐승들>
105-182p 중 일부

2

1992년 12월 7일, 퓨젯사운드만의 위드비섬. 세계대전은 끝났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도 끝났다. 냉전 역시 마침내 종식되었다. 위드비섬 해군항공기지는 남아 있다. 그리고 산호해 해전에서 시신을 남기지 않고 전사한 전투기 조종사 윌리엄 올트의 이름을 딴 비행장 너머로 한없이 넓고 깊게 펼쳐진 태평양 역시 그대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바다는 사람의 몸을 통째 삼켜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 윌리엄 올트는 다른 이들을 하늘로 실어 보내는 활주자가 되었다.

해군항공기지에서는 해저에 설치된 수중 음파탐지망이 수집한 무한한 데이터의 형태로 무한한 태평양을 읽어낸다. 애초 냉전시대에 소비에트 잠수함을 감시하는 데 썼던 이 수중음파탐지기는 냉전이 끝난 이후로는 바다 자체에 귀를 기울이며 형체 없는 소음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왔다. 스펙트로그램 출력기에서 밀려 나오는 그래프의 형태로.

1992년 12월 어느 날, 해군 병장 벨마 론킬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 소리를 자세히 살피려 다른 스펙트로그램으로도 출력해보았다. 믿기지 않게도 이 소리의 주파수는 52헤르츠였다. 벨마는 손짓으로 음향기술자에게 가까이 오라는 시

늑을 했다. 다시 와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향기술자가 다가왔다. 그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음향기술자의 이름은 조 조지였다. 벨마가 말했다. “고래 소리 같은데요.”

조는 생각했다.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리의 패턴은 대왕고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대왕고래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5-20헤르츠, 즉 인간의 주변 청각 범위에 존재하는 식별하기 어려운 웅웅 소리다. 52헤르츠는 고래의 주파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런데 홀로 높은 소리로 노래하며 태평양을 누비는 어떤 생물의 음성기호가 이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고래가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길을 찾는 울음, 먹이를 찾는 울음, 소통하려는 울음. 혹등고래나 흰수염고래 같은 특정 종은 짝짓기 상대를 찾으려 노래한다. 수컷 흰수염고래의 울음소리는 암컷보다 큰데, 180데시벨이 넘는 소리를 내는 이 수컷 흰수염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이다. 수컷 흰수염 고래는 짹짹 소리, 쿵쿵 소리, 굴리는 소리, 웅웅 소리, 공공 소리를 낸다. 뱃고동 같은 이 울음소리는 바닷속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나간다. 52헤르츠 주파수의 울음소리는 전례 없었기에, 위드비섬 연구원들은 수년간 이동철

마다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를 향해 남쪽을 향하는 이 고래를 추적했다. 고미기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수컷뿐이므로 고래는 수컷일 것이다. 고래의 이동경로에는 특색이 없었고, 특이한 것이라고는 울음소리, 그리고 주변에서는 다른 고래의 존재가 단 한번도 탐지된 적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고래는 늘 혼자인 듯했다. 그의 높은 울음소리를 듣는 이, 적어도 그의 울음에 대답하는 이는 없는 듯했다. 음향전문가들은 그를 52 블루라고 불렀다. 이후 한 연구 논문을 통해 기존에 그와 유사한 울음소리 특성을 가진 고래가 발견된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논문의 결론은 이렇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 그와 같은 종의 고래는 단 한 마리 뿐일 수도 있다.” [중략]

그러나 알고 보니 52 블루의 일대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연구비가 끊기고 3년이 지난 2004년, 최초로 52 블루를 다룬 우즈홀 연구자들의 논문이 게재되자 이 고래에 대한 편지들이 쇄도했다. 빌 왓킨스가 논문 승인 후 한 달 뒤 사망했기에, 밀려드는 편지들을 받은 것은 그의 연구보조원이었던 메리 앤 다어였다. 편지들은 일반적인 학술 서신이 아니었다. 당시 <뉴욕 타임스> 기자였던 앤드류 레브킨이 쓴 표현대로라면, “고래목의 세계를 떠도는 한 고독한 존재에 슬퍼하는 고래 애호가들” 또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독립적으로 혼자만의 노래를 부르는 52 블루에게 자신을 동일시한 이들이 보낸 편지였다.

그해 12월, “바다의 노래, 대답 없는 아가펠라”라는 제목을 단 레브킨의 기사가 나오자 우즈홀로 더 많은 편지가 쏟아졌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해양포유류 연구자 케이트 스탠퍼드의 말이 의도치 않게 불난데 부채질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봐. 나 여기 있어.’ 그런데 응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죠.” 편지를 보내온 이들은 사랑을 잃은 이들과 청력을 잃은 이들, 버림받은 이들과 혼자인 이들, 한번 거절당하고는 다음을 머뭇거리는 이들, 다음번에 거절당하고서는 영영 머뭇거리고 마는 이들이었다. 고래에게서 자신을 보거나 고래를 안타까워하는 이들, 투사한 감정에 아파하는 이들이었다. [중략]

자연계는 언제나 인간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으로 존재해왔다. 낭만주의자들은 여기에 감상적 허위라는 이름을 붙였다. 랐프 월드 에머슨은 “천국과 대지의 교제”라고 불렀다. 우리는 우리의 공포와 갈망을 동물이나 산처럼 우리가 아닌 것에 투사하고 이로써 그들을 어느 정도 우리와 동류로 만든다. 이는 굴복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갈망하고 요구하는 행위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각조차 못 하는 때도 종종 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피셔벌 로웰이 화성에서 운하를 관측했으며 금성에서는 어렵듯한 “빗살”을 관측했다 주장하며 이를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 주장한 이래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한 검안사가 로웰이 사용했던 망원경의 배율과 조리개 때문에 관측하던 행성의 표면에 그의 안구 내

부가 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로웰은 외계의 생명체를 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시선이 남긴 흔적을 보았다.

“자연의 모든 외양은 정신의 상태와 조응한다.”라고 주장한 에머슨은 이 조응이 일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자연사의 모든 사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한쪽 성별만 있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다.”라며 인간의 투사가 수정란을 효율적으로 착상시킨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자연사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몸매 의미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일부”가 되어 인간에게도 자양분을 준다는 것이다.

에머슨은 이 과정을 찬양하는 한편으로 여기 담긴 함의에 질문을 던졌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려 자연물의 도움을 받지만, 후추 열매만 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언어란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그는 썼다. “우리는 고작 달걀을 익히려고 화산재를 쓰는 여행자와 같다.” 에머슨은 자연세계를 은유로 이용할 때 자연의 순수성이 사라지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우리가 산, 파도, 하늘을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이용한다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 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단 말인가?” 달걀을 익히는 데 화산재를 쓰는 것은 어쩌면 기숙사 방에서 앓는 항수병이나 이별 뒤에 찾아오는 권태를 거대한 고래에 담는 것을 빗대기 딱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다. 그가 외롭냐고요? 전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가져다

붙이는 게 정말 싫어요. [종락]

오늘날에 와서 루스벨트의 메시지는 묘하게도 52Hurts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되풀이된다. 이 계정의 자기소개란에는 고래가 자신이 처한 상징적인 위치에 저항하고 있다는 상상이 담겨 있다. “나는 상징도, 은유도 아니다. 나는 당신들 안에서 끓어오르는 형이상학도, 당신들 집착의 대리물도 아니다. 나는 한 마리 고래다.” 이 계정에 올라온 트윗들은 lvdhggv ahihd ajhkhds 식으로 대개 말이 안 되는 것들이지만 자못 진실하게 느껴진다. 이 트윗들은 어쩌서 자신이 트위터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고래가 남긴 것이며, 그의 무질서한 언어는 자신에게 투사된 언어에 전면적으로 저항한다. 그가 황설수설 지껄이는 말들은 미지의 것을 거짓으로 읽어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읽어낼 수 없는 것에 몰두한다. 간극 속에서 우리가 늘어놓은 투사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간극 자체를 인정한다.

“영적인 것 앞에서 물질은 타락한다.”라는 에머슨의 탄식은 우리가 “자연을 정신으로 옮기면서 물질을 버림받은 시체처럼 남겨둔다.”라는 뜻이었다. 우리의 모의가 끝난 뒤 52 블루의 실제 몸은 남겨진 물질과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시체가 되고 말았다. 이런 연금술에는 폭력과 아름다움이 둘 다 깃들여 있다. 에머슨은 둘 다를 이해하고 있었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집을 지으며, 그 집 너머에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 너머에 천국이 있다. 오직 우리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그는 썼다.

고래에 향한 궁금증을 이야기하던 리어나라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가 우리를 치유하려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고, 그의 노래는 치유의 노래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어쩌면 모든 노래가 듣는 상황에 따라 치유의 노래가 될지도 모른다. 혼수상태에서 보낸 7주가 끝난 직후에 듣는다면, 아니면 최악의 상황, 영영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에 듣는다면, 어쩌면 열망과 필요한 다른 주파수로 울려 퍼지는 같은 노래일지 모른다. 언젠가 리어나라는 그저 말했다. “그 고래는 모든 것이예요.”

52 블루는 고독의 메타포가 되는 한 마리의 고래를 넘어 고독의 치료제로서의 메타포로 자리매김한다. 은유는 언제나 동떨어진 두 점을 잇는다. 고립 속에는 파토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타인의 역경과 무관한 역경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고독이 은유를 찾아다니는 것은 정의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명할 수 있는 동반자, 즉 비유 속에서 싹트는 동류의식이라는 약속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 특정한 동류의식 안에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미니밴만 한 크기를 가진 심장이 내보내는 박동 소리를 추적하는 이들이다. 어쩌면 이들을 텅 빈 중심을 두고 모여든 공동체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52 블루에게 연민을 쏟아붓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고래를 가엾게 여기는 것과는 다르

다.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감정은 여전히 실재한다. 그럼에도 이 감정은 여전히 중대하다. 죽음의 목전에서 7주를 보낸 뒤 돌아온 한 여성을 도울 만큼.

워드비섬에서 조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나는 그에게 리어나라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그가 내 말을 못 들은 게 아닌가 했는데, 그날 방문이 끝날 무렵 그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람 말입니다.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사람이요.” 그가 말을 멈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이야기 정말 굉장하네요.” 그가 말했다.

고래는 고래일 뿐이라는 조의 말은 맞았다. 마찬가지로 고래는 모든 것이라는 리어나라의 말도 맞다. 고래가 고래일 수 있도록 인정하여 우리가 떠안기는 은유로부터 쉬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준 두 번째 자아의 윤곽선도 포용해 그가 우리에게 해준 일들을 인정한다면 어떨까? 그 고래가 자신의 실제 형상과 우리가 그에게서 필요한 형상 둘로 쪼개지게, 그 둘이 따로 따로 헤엄치게 한다면, 우리는 그 둘을 서로의 그림자에서 해방한다. 그리고 두 개의 다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래슬리 제이미슨, <세명 지르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
11-44p 중 일부

3

- 8시 49분 사고 발생. 배의 기울기 약 30도. 양승진 교사 추락.
- 8시 52분 최덕하 학생의 최초 신고, “살려주세요.” 최초 선내 방송,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 8시 55분 제주 VTS 신고 접수.
- 8시 56분 승객들 구명조끼 착용. 목포 해경에 신고 접수.
- 8시 58분 123정 출동.
- 9시 기관부 선원 도주 시작.
- 9시 1분 123정 교신 시도. “세월호, 여기 목포 해경입니다. 감도 있습니까?”
- 9시 2-3분 511호 출동. 세월호 선원 122에 신고. “사람 한 명이 바다에 빠졌어요.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목포 해경과 해경 본청 교신 시작.
- 9시 4분 둘라에이스호 구조를 위해 이동. 진도 VTS 세월호 교신 시도.
- 9시 5-7분 목포해경. “현 시각 관매도 남서 2.7마일 세월호 여객선 350명 승선 침몰 중” 이라고 모든 국에 전파.
- 9시 9-11분 513호, 703호 출동.
- 9시 13-15분 세월호 1등 항해사 신정호. 제주 운항관리실에 “엔진 정지. 발전기 꺼져 있고 수리 불가능” 이라고 보고. 또다른 항해사 강원식은 청해진해운에 “움직일 수 없다” 고 보고.
- 9시 16분 123정 현장지휘관으로 지령.
- 9시 17-18분 512호 출동
- 9시 19분 청와대 VTN 보도로 사고 인지.
- 9시 20-22분 청와대 해경청과 첫 통화. “카메라 나오는 것 없나요?” 그 무렵 한 승객의 문자, “살아서 만나자 ㅋㅋㅋ” 둘라에이스호의 다급한 교신. “탈출 시키십시오, 빨리.”
- 9시 23-24분 진도VTS 세월호와 교신. “인명 탈출은 선장이 판단해서 지금 빨리 결정하십시오, 10분 후 구조정 도착, 1분 후 헬기 도착 예정.”
- 9시 26분 511호 도착과 함께 상황 보고. “현재 45도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 9시 28-30분 511호 1차 6명 구조.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 선내 방송. “선실 내가 안전하겠습니다.” 그 무렵 조리부 선원 2명 도주.
- 9시 32분 513호 도착.
- 9시 34-35분 123정 도착. 청와대 재차 질문. “그거 영상 시스템 돼요, 안 돼요?” 그 무렵 배의 기울기 52.2도.
- 9시 37-38분 3층 침수 시작. 기관부 선원 7명 도주. 4층 좌현 갑판 승객 탈출.
- 9시 39-40분 세월호와 제주 운항관리실의 마지막 교신. “지금 경비정 1척 옆에 와 있습니다. 경비정 1척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513호 1차 6명 구조. 청와대의 전화. “VIP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 9시 42분 123정 세월호 갑판 진입.
- 9시 45분 123정 세월호 조타실 접안.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 승객들에게 방송.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세월호 선장 및 갑판부 선원 8명 도주. 배의 기울기는 59.1도.
- 9시 47분 3층 난간 침수 시작. 3층 좌현 승객 탈출.
- 9시 48분 512호 도착.
- 9시 49분 배의 기울기 62.8도.
- 9시 52분 512호 1차 6명 구조. 4층 난간 침수 시작.
- 9시 53분 5층 침수 시작. 4층 승객들 우현 갑판으로 이동. 서해청, 123정과 교신. “123정 직원들이 여객선 올라가서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 9시 54분 123정 상황보고. “완전히 침수해서 현재 좌현 쪽으로는 더는 구조할 수 없고 항공 헬기를 이용한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9시 59분-10시 512호 2차 6명 구조. 어선들, 어업지도선 도착. 목포서장. “근처에 어선들도 많으니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나.”
- 10시 4분 한 승객의 카톡. “저 지금 방 안에 살아 있어요.”
- 10시 5분 청와대의 전화. “인원 현재 몇 명?”
- 10시 6분 123정 세월호 선수 접안 승객 6명 구조.
- 10시 8분 한 승객의 문자. “네. 빨리 구조돼서 갈게요.”
- 10시 9분 배의 기울기 73도. 123정 구명보트, 어업지도선, 어선들 좌현 선미 승객 구조. 청와대 해경청에 전화. “현지 영상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진이라도.”

- 10시 10-13분 513호 3차 6명 구조. 청와대. “빨리 인원만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화를 주시구요.” 해경청의 대답. “전화 받느라고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10시 14-15분 배의 기울기 90도. 청와대.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어요?” 한 승객의 문자. “아직 객실이요.”
- 10시 17분 배의 기울기 108도. 전복. 승객의 마지막 카톡. “지금 더 기울어.”
- 10시 18분 123정 구명보트, 어업지도선, 어선들 우현 난간에서 쏟아져 나오는 승객 마지막 구조. 청와대의 전화. “물에 뛰어내리라고 해서 방송에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10시 21분 마지막 생존자 구조.
- 10시 22분 청와대. “지금 현재까지 구조 인원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 10시 24-25분 청와대 VIP 메세지. "단 한 명도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10시 28-29분 서해청의 보고. "현재 여객선 선수만 보임."
10시 30분 침몰.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을 참고해 작가가 정리하였음.







파우츠와 부이의 대화

□



작가와 배우들의 대화

password: buoy

오, 나의 비> 당신의 발목 아래서 당신과 함께
나를 위해 발을 끌려주세요


<오, 나의 비> 설치 부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바다는 당신의 발목 아래에서 당신과 함께 요동치고 있어요.
나를 위해 발을 굴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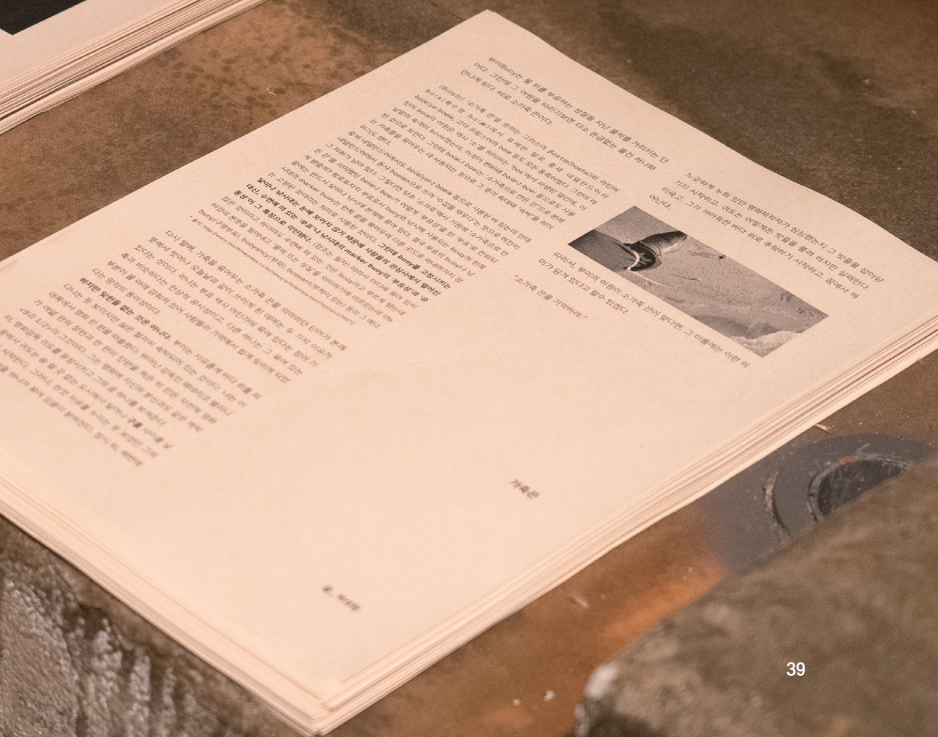
이것은 바다를 사랑하는 부이가 당신에게 건네는 낭만적 고백이다.
당신이 발을 구르면 지면의 진동에 의해 수조 안의 물이 물결치게
된다. 이는 부이로 대변되는 비인간과 우리 인간 사이 교감의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사랑의 은유이기도 한다.





구름, 사랑의 관측술, 가족근
2023, 가변크기, 종이 위에 인쇄.

나는 부이를 탐구하고 상상하면서 세 편의 글을 썼다. 그 각각은 기억, 사랑, 자유를 주제로 한다. 이 글을 통해 나는 부이 연작이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예비한다.



지상에서 살던 존재들이 내린 마지막 숨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다고 믿는 노인이 있다. 그는 자신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내의 마지막 숨을 찾아 평생을 떠돈다. 하지만 구름은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까닭에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니. 그보다도 대체 아내의 마지막 숨이란 것이 어떤 모양인지 그게 모양을 갖고 있기는 한지, 설사 모양이 있다손쳐도 노인은 그걸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지?

민진의 의문이었다. 곧 만 열여덟이 되어 보육시설을 나가야 하는 그녀는 노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 노인은 항상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단지 침 없이 전국을 떠돌며 아내를 떠올리게 만드는 모든 구름을 사진에 담을 뿐이었다. 오래된 다마스를 개조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말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그의 구름 아카이브가 만들어졌다. 민진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아카이브를 촬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인은 그녀가 아카이브를 보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민진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집요함은 그녀의 개성이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복원되는 거야. 복원된 구름, 누군가의 한숨인 거지.

노인의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곧 만 일흔셋이 되는 그는 한 번 여행할 때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 넘게 길 위에서 보냈는데 그때마다 적게는 수백 장, 많게는 수천 장의 구름 사진을 찍었다. 어쩌면 그이젠 하늘이 죽은 아내의 마지막 숨으로 가득한 천장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천장을 보고 누워 숨을 거뒀다.)

아무튼, 그의 아리송한 말이 진리라면 우린 모두 누군가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특별함과 고유함을 단지 환상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아내를 잃은 그의 슬픔이 조금은 덜어질까? 어차피 누군가 이미 겪은 일의 반복일 뿐이니까? 글썄. 애석하게도 어떤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무뎠지지 않는 법이다. 민진은 그의 말에서 오히려 더 진한 슬픔을 느꼈을 따름이다.

고민 끝에 민진은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기억의 모양으로 정했다. 그녀는 노인이 결국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기억의 모양은 구름처럼 수시로 변하고, 시시각각 표정을 바꾼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사실과 동일한 기억을 가져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노인의 구름 아카이브는 아내에 관한 그의 기억이 수만가지의 모양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부이가 바다를 뛰어 보내오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난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래 전 구상해 두었던 것임에도 다시금 연상하게 된 이유는, 부이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부이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는 매번 얼굴을 바꾸는 바다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는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삶의 많은 순간을 기억에 의존해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에 관한 정확한 기록만큼이나 부정확한 기억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배우에게 한 사건의 경과가 시간순으로 정리된 기록을 차분히 읽어달라고 했다. 그것은 정확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에 관계없이, 우리들 각자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들 각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무신론자들의 나라에선 사랑을 통해 신성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문장을 어디서 읽었던가? 분명 출처를 함께 적어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들춰보며 확인을 했던 것도 분명한데 어느 순간엔가 출처는 사라지고 오직 문장만이 남아 내 몸속을 떠돌고 있다. 그것은 몸속 어딘가에서 사라졌다 매년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마치 희귀종이 출몰한 듯 그때마다 내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곤 한다. 그것이 가장 최근에 발견된 곳은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이었다. (문어의 입은 겨드랑이에 있다.) 그곳은 내가 얼마 전 담이 걸려 사흘 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막 촬영을 끝낸 영화의 후반작업을 무리하게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던 탓이다. 어쨌거나 그 덕분에 난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는데, 그때의 여유가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모양이다. 잠시 잊고 있던 저 문장과 더불어 <무신론자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써둔 이야기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낸 걸 보니, 그 이야기는 이
러하다.

미공개

관측술

<무신론자들의 나라>의 주제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겐 오래된 주제이며, 앞으로도 계속 품고 갈 주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순간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많은 순간을 그것에 대해 잊고 지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잊힌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좋아하는 음악이 귀를 타고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뒤로 떠나지 않고 떠돌다 어떤 순간에 어디에선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가 부이에게 끌린 것은 바다에 떠 있는 사진을 본 순간 배꼽 부근에서 사랑이란 주제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김경주는 배꼽을 두고 “뱃속에서 들고 나온, 그곳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배에 띄워놓은 부표”로 비유했다.) 나에게엔 부이가 바다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인간은 거대하고 불가해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세월 그것을 분류하고 관측하며 단순화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세계를 대상화하면서 착취해왔다. 어쩌면 그것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현재의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다와 거리를 두지 않고 온몸을 담그고 그야말로 전신을 동원해 읽어내려 부턴히 노력하는 부이의 모습은 내겐 사랑의 모범으로까지 보인다. 그것을 사랑의 관측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부이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부이Buoy는 물 위를 부유하는 성질을 지닌 물체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런데 그 어원을 따라가보면 다소 뜬금없는 물건 하나와 만나게 된다. 바로 소가죽 끈이다.

(Buoy는) '소가죽 끈'을 뜻하는 그리스어 *βοηται*(boetai)와 라틴어 *boia*(복수형 *boiæ*)에서 유래한 말로 중세 네덜란드어의 *bo(e)ye·boeie*, 고대 프랑스어의 *boie* 등도 모두 동족어였다. 그런데 라틴어 *boia*의 어원은 역시 '소'를 의미하는 'bos'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낱말의 속격이 *bovis*였는데, 이것이 변화돼 *boia*나 *boei* 등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oia*나 *boei*는 '소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본래는 가죽들을 묶어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 뜻이 확대돼 '속박'을 의미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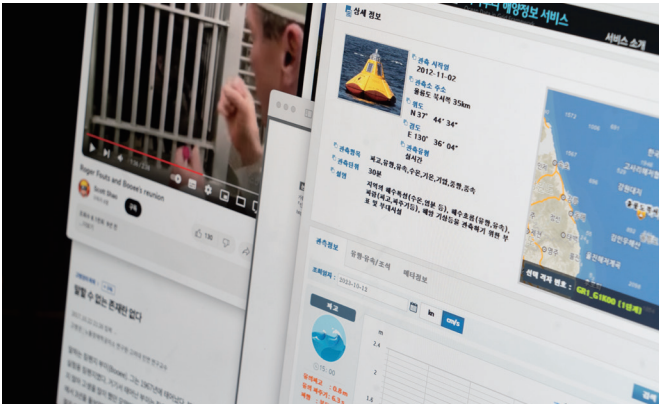
중세 네덜란드어에서도 *bo(e)ye*나 *boeie* 등으로 사용된 바 있는데 현대 네덜란드어에서 동사 *boeien*으로 쓰여 '수갑을 채우다'는 뜻으로 여전히 그 자취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당초 '소가죽'에서 기원해 '소가죽으로 만든 끈'을 의미했던 *boia*나 *boei*가 어떻게 '부유성'을 띤 '부표'로 전화되게 됐을까? 항로표지의 부표로서 *buoy*와 낚시에 사용되는 *buoy*의 한쪽 끝에는 반드시 닻이나 낚시대 본체에 묶여 있다. 결국 부표의 *buoy*나 낚시대 marker *buoy*는 한쪽 끝을 묶어두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buoy*를 고정시키는 닻이나 낚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대신, 수면에 떠 있는 '부표'나 낚시대의 marker *buoy*의 '부유성'과 '유동성'이 그 특징으로 각인됐다. (강조는 필자) 따라서 어디에 묶여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면에 떠 있는 것은 *buoy*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것이 본뜻을 밀어내고 '물에 뜨는 성질'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는데 *life buoy*(구명부표), *buoyancy*(부력), *buoyant*(부력이 있는) 등이 그 예다.

다시 말해, 가죽을 묶어두는 소가죽 끈을 의미하던 단어가 본래 뜻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같이 쓰이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부표 역시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점이 가죽과 비슷하다는 현상적 유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묶여 있는 부분이 물 아래 잠겨져 있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히게 되었다는 망각의 요사(妖邪)성이다.

하지만 잊힌들 없는 것은 아니다. 부이는 자유롭게 바다 위를 떠다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철저히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영화 한 편을 떠올렸다. 뛰어난 감독인 페데리코 펠리니가 여덟 편의 장편과 한 편의 단편을 찍은 뒤 만든 자전적 영화 <8과 1/2>이 그것이다. 그는 영화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 영화감독 귀도를 등장시키고 그의 꿈 하나를 보여준다.

그 꿈에서 귀도는 숨 쉴 곳 없는 도시에서 달아나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껏 자유를 누리는 듯 보였던 그의 발목에 실은 밧줄 하나가 묶여 있음이 밝혀진다. 잠시 뒤, 해변에 느긋하게 누워 있던 영화제작자가 심심했는지 그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귀도는 어떻게든 밧줄을 풀려 하지만 실패한다. 이윽고, 그가 까마득한 바다 위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꿈에서 깨어난다. 따라서, 부이의 어원이 소가죽 끈이 맞다면, 그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다.

“소가죽 끈을 기억하라.”



Cyborg... Airdrop.

2023. 가변크기.

인간은 태어나 맴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옷을 입고 도구를 사용하여 타고난 것 이상의 것을 이룬다.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강화되어서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기계, 인공장치 등과 연결하며 혼종적 존재로 변화해가고 있다. 나 또한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글과 이미지, 영상 등을 검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영감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누구나 설치된 PC를 조작하여 나의 작품 구상 과정을 엿볼 수 있고, 자료들을 가져갈 수 있으며 혹은 새로운 자료를 띄워둘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나는 관객과의 연결을 갈망한다.

참고자료들의 목록

단행본

- <짐을 끄는 짐승들> 수나우라 테일러 저, 이마즈 유리 역, 오월의봄, 2020.
- <페미니스트, 쿼어, 불구> 앨리스 케이퍼 저, 이명훈 역, 오월의봄, 2023.
- <침팬지와의 대화> 로저 파우스트/스티븐 투벨 밀스 저, 허진 역, 열린책들, 2017.
- <비명 지르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 레슬리 제이미슨 저, 송섬별 역, 반비, 2023.
-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도나 해러웨이 저, 황희선/임옥희 역, 아르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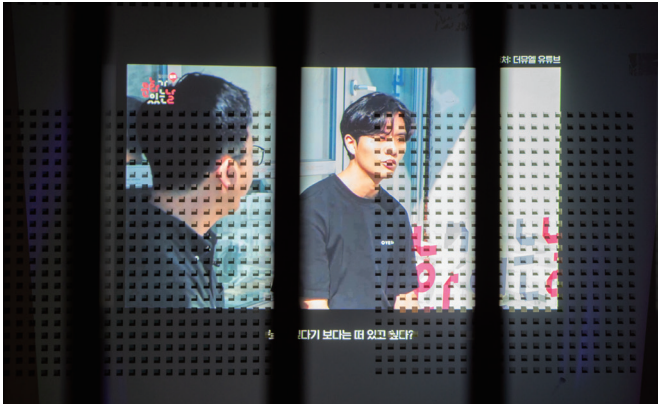
논문

- 현남숙. (2021). D. 해러웨이의 다종적 생태정치: '함께-되기'와 '응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5, 79-106.
- 박일준. (2021).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시대 인간의 존재역량 - 해러웨이의 공-산, 배넛의 사물정치생태학 그리고 바라드의 내부적-작용에 대한 성찰 -. 인간연구 제44호(2021/여름), 39-76

디지털 자료

- http://www.khoa.go.kr/oceangrid/koofs/kor/observation/obs_real.do
-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710222126015>
- <https://books.google.co.kr/books?id=Y1E6DwAAQBAJ&pg=PT263&lpg=PT263&dq=침팬지+부이+booe&source=bl&ots=QALc3JzqBk&sig=ACfu3U2Tq5ucaqkr0AdQmle3tdcq0sTRbg&hl=en&sa=X&ved=2ahUKewiS66im7L0CAxXa4mEKHR0qCcoQ6AF6BAgdeEAM#v=onepage&q=침팬지%20부이%20booe&f=false>
-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z3qLL7L0CAxWSBYgKHRy7DDwQFnoECAoQAQ&url=https%3A%2F%2Fwww.kiost.ac.kr%2Fcomm%2Ffms%2FFileDown.do%3FatchFileId%3DFILE_000000000008029%26fileSn%3D0&usq=A0vVaw2qhPHxn2_E-wLwfZ3rREpd&opi=89978449

그 외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우린 옮긴다. 사람을, 물건을, 소식을, 기쁨과 슬픔, 애처로움을.
 또 자주,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존재를 멀리 보내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용기있게 나아가서
 끈기있게 머물며 쉽 없이 신호를 보낸다.
 언젠가 우리가 그 신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고대하면서.

- <나는 바오> 내레이션 중 일부

나는 바오

2023. 가변크기.

나는 스스로를 인터넷이란 바다에 떠 있는 부이로 상상한다. 부이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 아래 닻에 묶여 있는 존재다.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설정한 주제인 기억, 사랑, 자유 그리고 언어 등의 닻에 스스로를 묶고 그와 연관된 다양한 영상, 이미지 등을 찾아내 한 편의 영상 에세이를 완성하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 것들도 함께 발견하게 되었다.



내 오랜 별명을 부이가 수어로 부르는 것을 보고 나는 당황했다.



그대가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한지
왜 내 몸이 이리도 뜨거운지

그대가 꽃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김선우,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인가>

작가와 배우들의 대화

H 허성완 (영화감독, 작가)

L 임이지 (배우)

J 전려은 (배우)

S 성빈 (배우)

〈오, 나의 비〉는 해양관측용 부이에서 시작한 비이라는 초성의 동일성에 기대 수어를 할 줄 아는 침팬지 부이로 이어진다. 그리고는 급기야 배우(비)와의 대화로까지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기억, 사랑, 자유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곳에는 그 중 일부를 정리, 발췌한 뒤 문장을 다듬은 내용을 실는다. 만약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32 페이지의 QR 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등을 보이고 있는 S를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J, H, L.

H 안녕하세요.

L, S, J 안녕하세요.

H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 이야기를 해 보면 저희가, 그때 성빈 배우님께 선 스태프로 참여하셨지만, 려은 배우님과 이지 배우님을 처음 뵈 게 저번 영화였잖아요, <내 사랑의 생태계>. 그거랑 이거(전시)는 뭐랄까 주제의식 면에서 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의 생태계> 안에 연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연극에는 좀 특이한 '투명인간' 이 등장하고요. 그 투명인간은 몸이 투명해졌을 때, 사람이 아닌 존재들 그러니까 동물, 식물 등에 이입이 되어서 그들이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그 지점에서 이번 전시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 인식 능력의 한계라는 게 저에게도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밖에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제가 존중하고 또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화두거든요. 그러다보니 부이를 소재로 해서 그 주제에 조금 더 들어가본 게 이번 전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세 배우분을 부이(역할)로 초대한 것은, 부이와 배우가 초상이 같다는 점이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가 <오, 나의 비>의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이(비)가 칠판지 부이(비)를 거쳐 배우(비)가 된 거죠. 그럼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번 전시에 비으로서 참여하신 소감을 한 번씩 듣고 싶어요.

L 음, 일단은 저는 부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바다 부이 말고 칠판지 부이요. 오늘 와서 (감독님이 촬영) 준비하시는 동안 봤던 영상, 그 부이랑 박사님 만나는 것도 봤는데. 너무..

H 느낌이 이상하죠.

L 어... 글로 읽었던 건데 또 영상으로 보니까 판이하게 달랐던 거 같아요. 너무... 울컥하면서 왔어요.

H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성빈 배우님께도 드려볼게요.

S 제가 감독님과 돌이 찍을 때도 얘기했던 게 내용 중에 그 (동물에게 행해지는) 실험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한데, 그런 실험들로 인해서 뭔가 큰 발전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어느 게 옳은 건진 모르겠는데... 아까 그 영상(부이와 파우츠 박사의 재회)을 보면서도 동물을 그런 식으로 가두고 실험을 하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영상을 본 순간) 불쌍하다고 측은지심을 느끼는 건지.. 그리고 저기(작가노트)에 적혀 있듯이 인간중심주의라는 게 과연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고민)들을 좀 하게 됐던 거 같아요.

J 저는.. 감독님이 보내주셨던 작가노트나 이런 글이 일단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감독님의 뇌속을 [양손을 들어올리며]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재미 있었는데. (저는) 부이(buoy)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제가 뭔가를 볼 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핸드 드라이기를 하는데 애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 어쩌면 이게 같이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침팬지도, 저는 예전에 <흑성탈출>을 보고 약간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제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저 스스로)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랑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뉘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거죠.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H (웃음) 옆드려서 절받는...

(일동 웃음)

L 어떠셨나요?

H (웃음) 점수는 따로 제가..

L (웃음) 아, 미리 말씀해주셨어야죠. 더 열심히 말하는 건데.

- S (려은배우에게) 누나. 이분법 이런 멋있는 말 쓰기 금지예요.
- J (웃음)
- L (웃음) 아, 나는 막 슬펐어요. 그런 말 했는데.
- H (웃음) 그렇지만 그 슬픔이라는 게 어떤.. 개념의 혼란이잖아요? 저도 사실 준비 하면서도.. 이게 사실 정돈이 안 된 생각들을 펼쳐놓은 거 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 정치성향을 말씀드리면, 음,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건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다 싶었던 거거든요. 무수한 반사작용의 끊임없는 교차.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주의(-ism)를 신봉하게 되는 순간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배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뭔가를 너무 단단하게 믿지 말자. 항상 물처럼, 물렁물렁하자.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번 전시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들이 끊임 없이 교차하고 있다는 걸 이런 (전시) 구성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

H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제가 던진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던졌으니가 저부터 얘기하면, 저도 사실 부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다가 어떻게, 지금 사실 기억이 안나는데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정말 우연히 본 거예요. 부이라는 게 바다 삼면에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게네들이 실시간으로 (바다의 상태를 읽은)데이터를 전송하고 저도 (그걸) 볼 수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흥미로워가지고, 일단 그 (부의) 모양과 바다의 푸른색에 셋노란게 딱 떠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번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글에서도 썼듯이 제가 상상한 부이는 바다를 사랑해서, 바다에 온몸을 담고, 바다를 읽어내는 존재였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저는 촉각이 가장 내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누군가를 짝사랑한다면 그 사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그 사람 얼굴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를 맡고 안 맡은 척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목소리를 엿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감각들은 상대한테 들키지 않고 다 내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촉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만질 때, 이 사람의 피부도 감각기관이고 내 것도 감각기관이니까 (그게) 이렇게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닿은) 부분을 서로 만져버리는 거니까, 내가 만지는 순간 만져진다는 게 촉각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상대의 존재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게 촉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부이가 바다에 몸을 담고 있는 게 부이와 바다가 서로의 촉각으로 만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그게 어떤 좋은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어떤 사람(유기체)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비유기체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질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원지조차 아직 모르겠지만, 그걸 깨달고 그걸 만들게 된다면 다 이론 듯한 느낌이 들 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촉각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고 촉각이란 제 생각엔 평등하기 때문에 사랑은 평등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L 사랑에 대해서 평소에 엄청 많이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만큼 사랑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건 엄청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가진 힘을 인정하고 그걸 신뢰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야 뭔가 사랑은 엄청 지대하고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 고민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린 왕자>를 좋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우랑 어린 왕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여우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왕자한테 나를 길들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여우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상당히 졸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아픈 게 싫어요.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그니까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하는 무궁무진한 걸 계속 주고 받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부재가 되면 나는 아파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럴 수 있는 힘인 거 같아요. 아플 수 있는 걸 알지만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힘? 용기? 그런 거 같아요. 자, 다음! (웃음)

S (웃음) 감독님이 영화 얘기를 하셨고 생물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저에겐 연기인대. (연젠가) 롬메이트랑 술을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의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연기' *그거 참 이기적이다.* (물론) 그거는 연기를 하는 것 자체보다는 연기로 이루고 싶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라보는데 단 한 번을 안 돌아봐준다.* 그런 얘기를 술 먹으면서 막 장난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롬메이트가 연기를 그만둘 때도 *나는 이 짝사랑을 끝내겠다. 돌아봐주지도 않는 놈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연인들끼리의 사랑이라든가 가족 간에 친구 간에도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아무리 평등하려고 해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줌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사랑은 일방적일 수 있되 같이 주고 받게 되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과 농담)

J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웃음) 저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으로 든 생각이 느낄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뜨겁고 막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사랑을 느낄 때 진짜 너무 수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모양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게 뭔가 바다 같기도 하고 파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부이가 진짜 바다를 사랑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 중에서, 최근에 저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잘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워할 때의 저 자신이 싫어요. 저는 못나 보이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너무 그 미움이 자꾸.. 사그라들었다가 또 올라왔다가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딱 이 미움을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움이 자꾸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니까 그 모래를 확 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랑이 좀 모래 같을 수도 있겠다. 저는 확실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훨씬 위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사랑의 생태계>에서의 이지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널 만난 이후로 내 삶은 모래였어.”

H 문득 떠오른 질문인데, 성빈 배우님은 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지, 려은 배우님은 사람이 아닌 대상 중에 사랑하는 게 있어요?

L 너무 많은데. 음. 저는 늘 지갑에 넣고 다니는 이만한 편지가 있어요. 엄청 친한 친구가 준 건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읽으라고. 그래서 항상 넣고 다니거든요. 언제 누가 미워질지 모르니까요. (웃음)

H 그 편지를 잃어버리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L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집에 뒤야 되나. 잘 잃어버려서. 잃어버리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그거 한 10년 된 것 같은데.

J 저는 지금 막 생각난 거는 신인 것 같아요. 제가 종교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 중에서는. 그런데 이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의무감이 있기도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저한테는 (신이) 되게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L 왜 왜 두려워?

J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나를 벌할 수도 있는 유일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

을 하거든. 반면 의무감 없이도 가장 사랑하는 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이래서 좋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파도가 엄청 높아도 좋고 잔잔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고.

H 두 분 모두 '연기' 는 선택하지 않으신 걸로. 그럼 여기서 연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웃음)

(일동 웃음과 장난스런 박수)

L (S에게)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J 그런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연기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면 욕심 낼까 봐. 그러면 혹시 잘 못하게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러운 거?

S 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를 향한) 짝사랑이 뭔가,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연기가) 진짜 말 안 듣는 애 같은 느낌? 뭐랄까. 이 존재를 확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데,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안 볼 수도 없는. 그냥 나의 일부인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연기가.

H 좀 신선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연인이나 뭔가 그런 이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봤는데. (연기를) 말 안 듣는 아이에 비유하는 거는... 그렇죠, 내다 버릴 수도 없고?

S 네. 열받기도 엄청 열받고.

L 맞아. 그런데. 속시원해. 뭔가.

J 나는 진짜 그 약간 내가 짝사랑이 될까 봐. 그래서 조심스러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말 못 거는 그런 거.

H 왜 그렇게 좋아요?

J 연기요? 왜 좋지. 그냥 좋아요. 멋있잖아요. (웃음)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연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소중한 것 같아.

H 저도 영화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할 때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때 되게 즐겁다가도 어느 순간 막 뭔가 또 안 풀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다. 내가 이 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 같아요). 연기도 그런 게 아닐까? 짐작해보는 거죠.

J 감독님 말씀대로 예전에 처음 할 때는 그냥 그 연기하는 순간이 너무 재밌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때 진짜 저런 세계가 진짜 있구나. 있었지 내가 거기 있었지.* 약간 역사가 되는 그런 기록되는 것도 그거를 보는 게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H 맞아요. 설록 홈즈가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세계만이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설록 홈즈의 세계도 있고, 반지의 제왕의 세계도 있고, 부이도 있고.. 그런 세계들이 현실과 함께 같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만들어지는 순간 존재하게 된다는 거. 제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인물이 되고, (그들이) 그 안에 영원히 살아 있는 걸 볼 때 즐겁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S 아, 저는 설록 홈즈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일동 웃음)

- H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기억. 이번에 제가 세월호 사건 기록을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책에서 가져온 건데 그 책이 그 사건의 경과와 검찰 수사, 재판까지의 기록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안 사실들도 많고, (시간대별 사건기록을) 받아 적으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배우분께서는 그걸 카메라 앞에서 읽으셨으니까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우선 좀 궁금해요.
- L 일단은 감독님이 좀 건조한 느낌으로 읽어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건조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좀, 뒤쪽으로 갈수록 막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살려주세요’ 나 ‘살아서 나갈게’ 라거나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침몰’ 이렇게 써있는 걸 보고 뭐라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해야 되나. 당장 엄청 요동치는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페이드아웃 하듯이... 조금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 고3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입시할 때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연기학원에 갔었어요. 학원에 갔다가 이제 막 저녁에 늦게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친구랑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왜 도난 거울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 보면서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친구가 갑자기 ‘혁’ 이래요. (제가) ‘왜’ 이러니까 (친구가) ‘이런 일이 있다’ 이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가 떠올랐어요.
- S 각자의 기억이 좀 다를 것 같은 한데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전역을 거의 앞두고 있을 때라 제가 취할 수 있는 힘이 가장 클 때 (웃음) 그런 굉장히 평화롭고 그런 때였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군대가 어쨌든 폐쇄적이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안에서만 계속 얘기가 도니까 밖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울한 분위기가 좀 계속 유지됐던 것 같아요. (희생자분들 중에) 꼭 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큰 참사였으니까, (그때)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걸 분명히 아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좀 먹먹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좀 무더진 것 같은 하더라고요.
- 그때만큼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글이라서 그런 건지. 그러면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혼자 조금 느꼈다가 또 한편으로 과연 이게 무더지는 게 내가 잘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J 저는 완전히 반대인데 오히려 사실.. 그.. 너무나 미안한 게 그 당시에 저는 나는 톱스타가 될 거야 가수가 돼서 막 슈퍼스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안고 혼자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거든요. (사건) 한 달 전에 제가 앨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홍대에 처음 입성을 해서 이런저런 크루들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휩쓸려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 불면 그냥 그대로 휩쓸려 다니고 어딘가에 취해 있고 항상 자극적인 것에 되게 몰들어 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저도 충격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일었고 다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했는데.. 진심으로 정말 애도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노란 리본 이런 표시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진짜 애도하지 않았고 사실은. 안타깝고 정말 충격적인 뉴스고 너무나 안 됐고 너무 슬픈 일이지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나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리고 그냥 잊었는데.. 워으면서 약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되게 인간답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반대로 저는 지금 너무나 미안하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기억해야겠다. 막 티를 내고 이러지 않아도 기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습관적으로 이 시계를 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습관적으로 그냥 차고 나왔어요. (그러다) 기차에서 딱 봤는데 시계가 멈춰 있는 거예요. 희생자분들은 거기서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S (듣다보니)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렇지만 그제) 저의 솔직한 심정이긴 했으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었는데..

H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곧 있으면 (사건이 있은지) 10년이잖아요. 내년이면 이제 10년이 되는 사건이니까 정말 직접적인 당사자분들하고 저희가 (현 시점에) 느끼는 거는 너무 다르겠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해서... 저도 그냥 제 경험을 이어서 얘기해보면, 당시 저는 (사회적 슬픔에) 감정 이입을 하면서도 약간 거리 두기를 계속 했던 게 너무 빨리 그거를 상징화하려는, 너무 빨리 은유나 상징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 노란 리본도,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걸 거는 순간 내가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기

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란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 당연한 일에 대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어쩌면) 내가 사실은 기억을 못할 거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무뎌지고 잊을 텐데 그걸 나의 도덕적인 의지로 붙잡아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완전 반대로 들린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잊을 텐데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잊고 다들 살아가게 될 텐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렇다면 이런 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쉬운 일 아니에요> 였어요. 저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는 길은 그런 사건이 나게 만들었던 시스템을 바꿔서 시스템 안에 기억을 인식 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거의 7~8년이 지났는데.. 작년이었죠. 이태원에서 너무나 유사한 일이 발생한 걸 보면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게 너무 너무 무의미하다고 느껴진 거죠.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마음의 힘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만 했더니 그 결과가 결국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싶었죠.

- H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자유인데요.
- J 자유..
- H 저희들은 밖에서 보면 되게 자유로워 보일 수 있잖아요.
- J 맞아. 맞아.
- H 그런데 자유로운 면도 있지만 사실 어딘가에 매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우선은 려은 배우님이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듣고 싶어요.
- J 저는 하늘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늘 보고 있을 때 너무 자유롭다고 느껴요. 그래서 하늘을 자주 봐요. 오늘도 오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자유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자유하다고 느끼는 것과 기분이 좋은 것과 구별을 잘 못 짓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헛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원가 많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뽕송뽕송한 날씨에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그냥 싹 이렇게 들어오고 하늘이 너무 예쁘고 그럴 때 그런 게 막 느껴질 때 저는 기분도 좋고 살아있다고 느끼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결론이 좀 이상한데, 저는 (자유라는 게) 조금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 거 같아요. 그래서 같은 순간이고 모든 게 똑같아도 내가 자유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 S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넌 좀 자유롭잖아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조금 자유로운 편이잖아.' 하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자유롭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저는 직업이라는 건 돈과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부터 이미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떨 때 자유롭다고 느끼냐면 그냥 진짜 아무 것도 없을 때. 직설적으로 말하면 스케줄이나 만날 사람이나 뭐 어떤 거를 하는 그런 게 없을 때, 좀 자유롭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 L 저는 거의 대부분이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웃을 어떻게 입고 나가볼까부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서 듣고. 려은 언니가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그걸 또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자유롭지 않은 상태는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J 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 S 저는 그런 압박은 좀 있어요. 연기에 대한 것보다는 일을 쉬는 것에 대한.
- L 불안해?
- S 불안까지는 아닌데.. 심심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쉬는 게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 L 그런 분들이 있어.
- S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머리와 심장이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있지. (웃음)
- J 저는 저 예전에 별명이 야생마였거든요. 너무 날뛰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야생마라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무분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만 하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그 나이에 맞는 자유였던 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조금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조금 너무 떠 있는 것 같다, 너무 정처 없이 부유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떠올리는 말이,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좀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진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제가 제 스스로 좀 속박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 이후에 연기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이가 닳을 내리

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발을 딱 땅에 붙이고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또 타인에 의한 거면 싫을 것 같고, 그 뜻이 내가 내린 것이었으면 좋겠다.

- L 너무 공감돼요. 엄청. 나도 그게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 일단은 너무 재미있어서 하지만 나같은 망나니(?)한테 연기는 잘 하고 싶은 무언가가 되고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
- S 저는 오히려 되게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 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교육받은 거는 어디서든 예의가 있어야 된다. 너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뭐 어릴 때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좀 강인하게 커야 된다는 느낌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게 사실 살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연기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자주 어색하게 자주 감정을 내뽐는 것 같고 하면서 어느 순간 느낀 게 나는 좀 때야겠다. 나는 되게 붕 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 당연히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부모님의 교육을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연기를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야겠다는 거죠. 사이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자기는 평생 철 없이 살고 싶다.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걸 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철 들고 싶지 않다.” 그러한 텐션을 연기할 때는 좀 유지하고 싶어요.
- H 세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진짜 지금 뭔가 너무 부자유스럽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세요?
- L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마음이 자유스러운 게 자유라고 느껴서 마음이 아주 극도로 불편했을 때가 바로 떠올랐는데요. 그냥 그럴 때가 저는 제일 기분이 안 좋거든요. 스스로가 별로일 때. 그때가 제일 답답하고 아주 부자유의 끝인 것 같아요.
- S 제 조카 중에 일본인이 있어요. 혼혈인데 일본 국적을 선택했어요. 애가 8살 때 까지인가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갔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서툴러졌어요. 그러다 아예 한국어를 안하다 보니까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언젠가 애가, 한날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지? 하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깐, 자기는 지금 한국어를 다 알아듣는데, 나는 지금 삼촌한테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일본어는 삼촌이 못 알아듣고 한국어는 자기가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속으로 너무 화가 났나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삼촌 말을 다 알아듣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삼촌한테 (내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게 너무 답답하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게 저에겐 자유롭지 못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 J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속박하는 건 좋거든요. 그걸 즐기고. 그러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속박되면 못 견뎌해요. 제가 그거를 정말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엄청 엄격하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제가) 또 딸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시는 게) 보호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막 이렇게 막 뛰어들고 싶은데 못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학창시절 동안. 그래서 안 보이게 막 반항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대학을 중단하고 서울 올라와야겠다고 결심한 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공부를 했고 뭔가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 불행의 원인을 부모님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선택해 온 거잖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니까 난 다른 게 좋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나도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내가 온전히 내 선택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나한테 책임을 돌리고 내 탓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용기내서 선택을 했던 게 이제 꿈을 향해 오는 거였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게 결국에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시켜서, 예를 들

면 막 화가 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참는 거는 OK인데, (타인인) '참아' 이렇게 해서 참는 거는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화가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부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타인에 의해서 내 행동이 정해지는 그런 거를 싫어하고, 또 그런 걸 거부하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 앞으로도.

S 근데 저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 추석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의 내가 보는 너는 20대 초반 때와는 달라진 것 같아서,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난 좋아 보인다. 다만 유일하게 후회하셨대요. 그렇게 가르친 걸. 어머니가 맥주 한잔 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후회할 짓을 왜 했냐고. (웃음)

H 저도 자유에 대해서 많이 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한데 그래도 이번에 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절차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하는 일반적인. 저도 그 과정을 다 밟았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 안에서 되게 소소한 자유들을 누렸지만 사실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부자유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부자유하다는 걸 크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내가 진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을 때인 거 같아요. 어쩌면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어떤 거대한 흐름을 타고 쪽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생기면, 그때부터 그걸 할 수 없는 다양한 조건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하면서부터 자유를 강하게 느끼게 된 거 같아요.

J 어, 저 생각났어요! 저는 자유를 사랑해요.



나의 바다는 당신과 함께 여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나를 위해 발을 굴러주세요. 계속.

1판 1쇄 2023년 11월 30일

지은이 | 허성완

펴낸이 | 허성완

디자인 | 스튜디오다한 허성완

책임편집 | 조현아

영문번역 | 허예행

펴낸곳 | 프로보크 프레스

출판등록 | 2018년 8월 7일(제2018-000034호)

전화번호 | 070. 4403. 100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서둔로166

메일 | provokepressbysoyo@gmail.com

인쇄 | (주) 에이프린트

이 책은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후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